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3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24. 하나님의 보좌

2013. 06. 16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피는 것으로 일곱 교회에 대한 편지는 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4장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들을 귀를 주셔서 잘 알아듣고 깨닫게 하는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4:1~11]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2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3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4 또 보좌에 둘러 이십사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이십사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5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켜 있는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6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7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8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9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10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11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1.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일곱 교회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일곱 교회는 계시록 전체의 프레임이라고 하셨지요? 계시록의 예언들은 일곱 교회 율타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까? 이제 미래주의 해석자들이 말세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말하는 4장부터 그 후속 장들을 공부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4장은 학자들이 삽입장이라고 말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제 4장을 말씀하시지요.

답: 예, 먼저 4장 전체의 광경을 말한다면, 4장은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는 항상 찬양과 경배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시다. 먼저 4:1입니다.

[계4:1]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

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감사합니다. 먼저 “이 일 후”라고 했는데, “이 일 후”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지요. 학자들의 설명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1) 2,3장의 일곱 교회에 대한 계시가 끝난 바로 직후를 뜻한다는 해석입니다. (2) 계시 장면의 변화를 나타내는 말인데 새로운 환상의 전환을 나타내는 묵시 문학의 전형적인 표현이라는 설명입니다. 2번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표현은 계시록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7:1,9; 15:5; 18:1; 19:1) “내가 보았다” 혹은 “내가 들었다”라는 말과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이것은 환상을 통한 계시의 사실성(事實性)과 현장성을 나타내는 생생한 표현이지요. 그러니까 4장부터는 3장까지 보여준 것과 다른 장면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이 새로운 장면에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때 열린 것이 아니라 이미 열려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문장이지요.

그때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셨는데, 그 음성은 “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그것은 1:10에서 요한이 들었던 그 음성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합니다. 학자들, 특히 미래주의 해석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후에 마땅히 될 일을 6장부터 나오는 일곱 인과 또 그 후의 일곱 나팔 등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말세에 집약적으로 중복적으로 일어나는 재앙들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2. 이 문장을 읽으면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이 상당히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목사님 생각은 그런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역사주의 해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미 수차례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은 구원의 복음을 맡은 교회의 역사적 진행 발전과 관련하여 교회를 중심으로 이 세상에 복음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중심으로 예언한 것이거든요. 교회가 이 일을 할 때 사단이 세상과 연합하여 어떻게 저항하고 방해하는지를 성도들을 위하여 계시하여 준 예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1:19절에 네 본 것,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라고 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일곱 금 촛대와 예수님 손에 있는 일곱별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와 일곱별 사건이 이제 있는 일부터 장차 될 일들입니다. 일곱 교회를 제외하고 장차 될 예언적 사건들을 해석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과 맞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에 될 일이라는 것은 앞에 보여준 일이 끝난 후에 될 일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일곱 교회 프레임 안에서 진행될 역사적 사건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 역사주의 해석법을 지지한다면 이 후에 될 일을 일곱 교회와 상관없이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주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계시록 예언이 요한 당시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사건을 계시해주신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 당시의 교회 사정만 말씀하시고, 역사적으로 연속적인 진행에 대한 계시는 없고, 뚝 떨어져서 말세에 집중적으로 일어날 재난에 대한 예언을 이 후의 일이라고 보는 것은 전체적인 이치로도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주 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될 일이라고 하시고는 다음 구절부

터 보면 세상에 일어날 사건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답: 그렇지요. 이 장면은 이미 말한 대로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변 광경입니다.

4. 왜 그 광경을 보여주셨을까요?

답: 지난 시간 끝 무렵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자들은 4장을 삽입장이라고 합니다. 구조상으로 그렇지요. 그러나 계시록 전체의 계시를 주관하시는 주체이신 분의 집무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계시와, 우주의 만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정당하고 당연하다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계시록 전체는, 아니 성경전체는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주셨고 주신 말씀대로 주장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무실 보좌를 열어 보이신 것이지요.

5. 아,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겠습니다. 그 보좌 하나님의 집무실 광경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시지요.

답: 2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하여 기술합니다.

[계4:2,3]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3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우선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성령은 삼위일체의 한 위이시니까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감싸 안은 은혜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3절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석으로 비유 표현했는데, 보석에 대하여 많은 비유적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 모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라세이”인데 이것은 직역하면 “보기에”입니다. 요한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경도 계시적 형상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실상을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딤후6:15,16을 읽어보면 분명합니다.

[딤후6:15,16]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16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이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요한에게 보이는 계시적 형상이 보석 같아 보인 것입니다. 그 보석이 벽옥과 홍보석 같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게 보였다는 것은 우리로서 이해가 쉽지 않지요. 그래서 학자들은 성경에 나타난 보석들의 성질을 생각하며 은유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1) 벽옥과 홍보석이 대제사장의 흉배에 붙이는 보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고, (2) 벽옥이 하나님의 위엄, 거룩함, 순결을 상징하며, 홍보석은 심판과 진노를 상징한다고 하는 사람, (3) 벽

옥이 하나님의 청결을, 홍보석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한다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해석이 일리는 있지만 진짜인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집무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위엄이 있고 찬란하다는 것은 확실하지요. 요한은 자기 본 광경을 자기가 보고 이해한 대로 최선을 다하여 장엄하고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 요한의 노력에 성령께서 지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석이 무엇을 표상하느냐고 따지기 보다는 기록한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집무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렇게 위엄이 있고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선에서 그쳐야 할 것입니다.

6. 그런데 벽옥과 홍보석은 보좌에 앉으신 분에 대한 묘사이고 보좌는 따로 표현하고 있지요?

답: 글쎄요? 보좌 자체를 묘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보좌에 둘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고 했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보좌를 두른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서도 학자들은 이런저런 해석을 하는데 성경적으로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주셨는데, 그때 “창9:13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비와 햇빛이 만나서 무지개를 이룬다고 하고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 이신데, 보좌에 둘러 있는 무지개를 사람들에게 나타내심으로 보좌에서 자비로 세상을 주관하시고 반드시 언약을 이행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표징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보좌를 두고 언약을 지키신다는 약속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예언된 사건들이 이처럼 틀림없이 세상 역사에서 진행되고 성취된다는 것을 요한에게 증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지개인데, 그것은 일곱 색깔이 있는데, 여기서 녹보석 같다고 했습니다. 녹보석도 어떤 보석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녹색으로 보인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1) 녹보석에서 빛나는 일종의 무지개와 같은 후광으로 해석합니다. (2)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나 영광스런 권능과 의로움으로 해석합니다. (3)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빛나는 광채로만 봅니다. (4) 하나님 자신의 언약에 대한 성취를 약속하시는 것으로 봅니다(창9:12,13). 이런 해석들은 녹보석에 대한 것이기보다는 무지개와 함께 해석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녹보석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녹색이 그런 것 같지요. 이 세상에 두신 나뭇잎들이 거의 다 녹색이잖아요. 녹색이나 청색은 사람을 쉬게 하는 기능이 있지요. 특히 녹색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녹보석으로 상징했는데 그것이 초목들의 잎 색깔과 일치하고 그것이 사람에게 베푸는 것과도 상통합니다.

7.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 녹색이 참 좋습니다. 전에는 그냥 나뭇잎이 초록색인가보다 라고만 무심히 지냈는데, 지금 보좌를 두른 무지개와 녹색이 연관되면서 나뭇잎이 굉장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참 마음이 푸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가 혼자 있지 않구먼요. 24보좌가 주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답: 예,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합시다.

[계4:4] 또 보좌에 둘러 이십사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이십사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장면은 “그 때에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는 이사야 24:23의 「70인역」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기에 묘사된 장로들이 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흰 옷을 입고, 그들의 머리에 승리의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장로들이 세상에서 구속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24장로에 대하여 여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 구약의 열 두 족장과 신약의 열 두 사도가 합쳐진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2) 종말 때에 일어날 교회의 휴거를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3)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4) 구약의 이십 사 제사장 반열을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5) 천상의 천사들을 가리키거나 혹은 찬사장들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6)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나 유대인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7) 바벨론 신전의 이십 사 성좌에 해당하는 유대 인물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해석들은 24장로가 예수께서 부활시켜서 승천하실 때 데리고 간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해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마 27:51,52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무덤들이 열리고 자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 사건을 봅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와서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그들을 하늘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은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을 생명으로 일으켜서 하늘로 데리고 가실 것에 대한 표본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즉 사망을 이기신 승리의 전리품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들이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봉사하는 것이지요.

8.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으로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목사님이 추론하시는 것입니까?

답: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추론해서 되겠습니까. 성경에 증거할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인용을 해도 이런 사실을 쉽게 납득하려고 하지 않을 것인데요. 에베소4:7,8을 보고 이야기 합시다.

[엡4:7,8]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8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말씀에는 예수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 즉 승천하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했지요. 즉 승천하실 때 사망의 세력에게 포로 된 자들, 곧 죽은 자들을 사로잡아 부활하게 하셔서 데리고 가셨다는 뜻이지요. 그렇게 승천하신 후에 은혜의 왕으로 취임하실 때 성령을 선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온 우주에 사망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키셔서 하늘에서 영생하게 하신다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사망을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봉사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서 그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보증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앞에서 말한 그런 여러 설명들이 나오게 되어 있지요.

9. 그러면 예수께서 24명만 부활시켜서 데리고 가셨습니까?

답: 데리고 간 사람들의 숫자를 우리가 다 모르지요. 마태복음에는 많이 일어났다고 했지요. 성경을 읽어봅시다.

[마27:51~53]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52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53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많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정확한 숫자는 기록하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그 수가 전부 24명인지, 아니면 많이 데리고 간 사람들 중에서 24명만 선택했는지는 모르지요. 어쩌면 24명이 부활했을 수도 있지요. 24명이면 많지 않습니까?

10. 24라는 숫자가 중요한 모양이지요. 더 많이 부활시켜서 데리고 갔더라도 봉사하는 사람들은 24명이니까요?

답: 예, 왜 24명인가 하는데도 여러 설명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 계시록과 성경 전체에 흐르는 완전성과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12”의 배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구약 12지파와, 신약 12 사도를 나타낸다고도 하고, 구약의 제사장의 24 반열을 나타낸다고도 합니다. 우리가 그 정확한 뜻은 모르지만 24명의 장로들을 위하여 하나님 보좌 주위에 보좌를 마련해주셔서 봉사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넘치는 은혜이지요. 그리고 그들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요한뿐만 아니라 계시록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생에 대한 확증을 주셨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이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있습니다. “흰 옷”은 성도나 천사가 입는 것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지요. 그것은 의와 성결을 상징한다는 것은 상식이 되어 있지요. 또 금 면류관은 왕관이 아니라 승리의 관으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을 통해 성도가 된 자들의 존귀와 사망을 이긴 것을 가리킵니다. 이십 사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쓴 사실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아무쪼록 목사님이나, 저나 애청자들이 다 흰 옷을 입고 이런 금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11. 예, 꼭 그래야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군요. 마쳐야 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잘 믿고 부활하고 면류관을 쓰고 하늘에서 우리 주님을 꼭 만나도록 성령을 주장하여 바른 신앙생활 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